성철 스님 백일법문 50주년 기념법회

7월 22일 해인사 대적광전서… 법어집 불전 봉정

근현대 한국불교의 대표 선지식인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5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가 7월 22일 합천 해인사에서 열렸다.

성철 스님은 해방 이후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원력으로 봉암사 결사를 이끌고, 1967년 결사정신을 이어받아 해인사 대중과 함께 총림체제를 만든 후 초대방장에 취임했다.

방장에 취임한 뒤 진행된 동안거에서는 당대 선지식 160여 명이 동참해 불교중흥의 뜻을 모았으며, 동안거 기간 중 성철 스님은 한국불교사의 일대사건인 백일법문을 설했다.

기념법회에서는 방장 원각 스님이 성철 스님의 법어집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를 불전에 봉정했다. 이어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은 해인총림의 연혁을 비롯해 성철 스님을 추모하는 기념사를 낭독했으며, 율주 종진 스님이 헌사를 했다.

종진 스님은 헌사를 통해 성철 스님과의 인연을 비롯해서 당시의 상황과 수행담을 회고했다. 또 방장 원각 스님은 백일법문 당시의 정황과 함께 성철 스님의 법어를 읽음으로써 그 가르침이 해인총림의 수행가풍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해인총림은 8월 3일 오후 2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방장 원각 스님 출가 50주년 기념 금산식을 연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백년대계본부는 7월 20~22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서 기획워크숍을 열고, 백년대계 핵심 주제를 사회 · 미래 · 공동체 · 정체성 등 4가지로 정리했다.

백년대계 키워드… 사회 · 미래 · 공동체

조계종, 2차 대중공사 앞서 기획워크숍 열어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제2차 사부대중공사가 오는 8월 2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불교의 백년대계를 모색할 핵심 키워드가 정해졌다.

백년대계본부(공동본부장 도법 · 호성 · 금곡)는 7월 20~22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서 '한국불교 100년을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기획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는 사부대중공사 의제를 앞서 점검하자는 취지로 열렸으며, 대중공사에 적극 참여해온 40여 스님과 불자들이 동참했다.

워크숍에서 백년대계를 위한 핵심 주제는 사회 · 미래 · 공동체 · 정체성 등 총 4가지로 정리됐다. '세상의 이웃인 불교'를 내세운 사회분야서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적 관점과 접근 방식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현(니) 스님과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등은 "세간과 출세간을 분리하지 않고, 전법 중심이 아닌 실제 사회를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불교가 잘해온 것과 잘할 수 있는 것, 실현 가능한 것을 먼저 찾을 때"라고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인 사회활동으로는 △호스피스 · 웰다잉 전문가 양성 △귀농귀촌자 활용한 공동체 구성 △평화적인 갈등 해결 △활동가 역량 강화 등이 제시됐다.

조계종 포교국장 원묵 스님, 선엽 스님, 이채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간사 등이 참여한 미래분야서는 탈종교화에 따른 미래 불교의 주체 양성에 방점이 찍혔다.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과 정웅기 생명평화대학 운영위원장,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장 등이 참여한 공동체분야서는 승가공동체와 사부대중공동체의 복원을 강조했다.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논의하는 자리서는 조계종명의 변경부터 '한국'이라는 국가단위 정체성에 얽매이지 말자는 의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불교계 나섰다

불교상담개발원 7월 3일 강사 배출, 운동 본격 전개

11월 불교스마트쉼본부 출범
학부모 · 가정 스마트쉼 확산
하반기 본부 출범, 캠페인도

초등학생 아들을 둔 불자 김 씨는 최근 아들을 크게 나무라는 일이 있었다. 아이가 가족들이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느라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한 것이 원인이었다. 아들의 상태를 우려해 상담센터를 찾은 그녀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아이가 엄마보다 스마트폰과 더욱 애착이 형성돼있다는 것이었다. 아이에게서 스마트폰을 빼앗으면 엄마를 잃은 것과 같은 상태에 빠진다는 진단에 김 씨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원인은 그녀에게 있었다. 평소 집안에서 김 씨가 스마트폰을 항상 사용했고, 유아기 때 아이가 보챌 때마다 만화영화 등을 스마트폰으로 보여준 것이 중독의 씨앗이었다.

이 같은 청소년과 아동들의 스마트폰 ·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불교계가 스마트폰 중독 치유에 발 벗고 나서 눈길을 끈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은 7월 3일 정보화진흥원 사무실에서 스마트쉼 전문강사를 위촉한데 이어 최근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스마트폰 중독 예방활동에 나섰다.

스마트폰 중독예방 운동을 대표하는 '스마트쉼' 운동은 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 치유 범사회적 운동이다. 불교계는 지난해 2월 협약을 맺고 적극적인 동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불교계에서는 현재 포교원 산하인 불교상담개발원이 대표로 스마트쉼 운동을 펼치고 있다.

3일 열린 위촉식에서는 불교계 스마트쉼 전문강사로 법전 · 진서 스님 등 스님들과 김길영 대림대 외래교수, 이경애 상담심리소장, 문진건 동국대 교수 등 10명이 위촉됐다. 대부분이 불교상담과 명상, 포교 전문가들로 지난해부터 전문교육을 받아왔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이들 전문강사들과 함께 불교계 스마트쉼 운동 방향을 설정했다. 가장 먼저 불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단기과제로 세우고, 하반기 10회 교육을 실시한다.

불교상담개발원 측은 "스마트폰 중독 치유를 위해서는 부모세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예방교육을 하반기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교상담개발원은 김길영, 이경애, 문진건 교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표준강의안을 개발했다. 표준강의안에는 △아이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에 대한 이해 △디지털 과의존 검사 안내 △인터넷 · 스마트폰의 유익한 사용 안내 △명상을 활용한 자기조절 능력 향상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11월 경 (가칭)불교스마트쉼문화운동본부를 출범, '스마트쉼 사찰'을 선정해 법회와 기도 등 사찰행사에서 스마트폰을 끄는 등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불교상담개발원장 가섭 스님은 "청소년 중독 예방은 자녀를 나무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중독을 벗어나는 가르침이 불교내에 있고 이를 불자 부모들을 비롯해 사회 각계에 적극 알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6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30%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특히 10세 미만 유아의 중독 비율이 17.9%로 20세 이상 성인의 중독 비율 16.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교구 출가지도법사, 구체적 역할 강화

조계종 교육원, '행자교육 운영령 개정안' 입법예고

출가지도법사 종령 근거 마련
정의 · 임기 · 자격 등 명시해

출가 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교구별 출가지도법사에 대한 역할 강화가 이뤄진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7월 21일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5월부터 본격 시행된 출가지도법사는 교구별 비구 · 비구니 스님 1명씩으로 구성됐다. 이는 행자들의 중도 퇴사율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이었지만 법적 근거와 자격, 역할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

입법예고 된 종령 개정안은 출가지도법사의 정의 · 자격 · 역할 · 임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가지도법사의 정의로는 '교구본 · 말사에서 출가를 희망하는 자에게 출가생활을 안내하고, 입산한 행자가 사찰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지도하는 비구 및 비구니를 말한다'고 명시됐다.

자격에 대해서는 비구 출가지도법사는 본사 교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했지만, 필요에 따라 다른 소임자가 맡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비구니 출가지도법사는 교구 내 비구니 스님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역할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법적으로 명시된 역할로는 △출가 희망자에 대한 면담 및 안내 △행자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 및 생활지도 △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점검 및 지도 △ 입문교육 및 수계교육 인솔 △퇴사를 원하는 행자에 대한 상담 △출가 관련 홍보활동 등이 명시됐다.

또한 출가지도법사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본사 주지가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종단 연수 교육에 대한 특전도 부여했다.

이번 개정에 대해 박정규 교육원 교육팀장은 "현재 중도 퇴사율은 25~27% 수준이다. 이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출가지도법사 스님들이 역할"이라며 "이번 개정은 출가지도법사 스님들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 위상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행자 교육 · 상담이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8월 11일까지다. 의견이 있으면 조계종 교육에 서면,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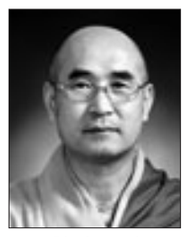
천태종 새 감사원장에 진덕 스님 지명

총무부장 월중 · 재무부장 설혜 스님 등 인사 단행


진덕 스님


월중 스님


설혜 스님


월장 스님

천태종 새 감사원장에 진덕 스님이 지명됐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7월 15일 감사원장 용암 스님이 일산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종의회 법제분과 위원장 진덕 스님(마산 삼학사 주지)을 새 감사원장으로 지명했다. 이에 천태종종의회(의장 도원)는 조만간 임시 종의회를 열어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진덕 스님은 종정 도용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아울러 천태종은 7월 25일 신임 총무부장에 월중 스님, 재무부장에 설혜 스님,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법인사무처장에 월장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한편 전임 총무부장인 월도 스님이 맡고 있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등 대외직함에 대해서는 총무원 내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장 진덕 스님은 1976년 대충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2013년 2급 법계를 품수했으며, 종의회 의원, 감사원 감사위원, 총무원 규정부장을 역임했다.

총무부장 월중 스님은 1990년 대충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마쳤으며, 총무원 재무부장, 수원 용광사 · 성남 화성사 등 주지를 역임했다.

재무부장 설혜 스님은 1989년 대충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마쳤으며, 총무원 사회부장과 상벌위원회 위원, 교무부 기도실 국장, 고성 보성사 · 거제 거광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금강대학교 법인사무처장 월장 스님은 1985년 대충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마쳤으며, 학교법인 금강불교학원 사무처장, 종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追 慕

제19회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추모 대재

귀의 삼보하옵고
(사)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 태평양 전쟁 당시 희생된 한국인 희생자 21,709위의 추모대재를 봉행함에 있어 이 뜻 깊은 추모대재에 사찰 및 민간 단체, 개인 등 누구나 수희 동참하기를 앙망합니다. 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 추모식은 1967년 (故)정기영 집행위원이 재단법인 부산영원설립을 사재로 설립을 하여 추모비를 설립하며 추모제를 시행하여 오던 중 1997년 부산시에 위임하여 위령제를 봉행하여 오면서 (사)대원불교조계종이 주관하여 태평양전쟁 한국인 추모제를 봉행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으로 이번 '**제 19회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추모대재**'를 안내 하오니 추모의 마음을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래

■ 일 시 : 불기 2561(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10시
■ 장 소 : (사)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 문 의 : 봉행위원장 석혜오 총무원장 화남 (010-3562-2462)

•증 명 법 사 : 화산당 월인 대선사
•집행위원장 : 정산당 청봉 대선사
•봉 행 위 원 장 : 석혜오 총무원장
•집 행 위 원 : 홍섭. 보행. 원정. 덕오. 원명. 수오. 설산. 법현. 월오. 법경. 초오. 법주. 법진. 지광. 도일. 유심. 지혜. 화성. 현오. 법원. 지담. 도현. 지현. 해안. 우정 (무순)

•봉행위원 : 혜주. 정음. 성현. 성오. 법담. 진여. 혜원. 지현. 운오. 혜통. 진오. 능현. 혜광. 능각. 법일. 정은. 지용. 무공. 정진. 청해. 성보. 법천. 혜운. 법수. 동원. 만월. 법용. 연각. 법오. 법안. 범일. 명오. 덕운. 대덕. 대연. 혜문. 보정. 광운. 도산. 수해. 운산. 원광. 해연. 해인. 광명. 대몽. 법성. 효선. 청명. 청공. 일월. 지원. 서정. 선혜. 무관. 선담. 무설. 서진. 해동. 청화. 대범. 연하. 황산. 해월. 태일. 현각. 덕봉. 법해. 법인. 법륜. 법전. 원오. 선공. 경민. 제웅. 정각. 도산. 용수. 무해. 효인. 도인. 대산. 진광. 일해. 송산. 성진. 현진. 윤하. 해오. 우담. 보명. 도도. 범오. 태봉. 문수. 광정. 수명. 능견. 청진. 보성. 성덕. 현산. 여일. 동선. 호일. 묵오. 진도. 혜명. 지성. 우초. 현암. 진명. 보각. 일성. 주연. 지종. 월행. 현운. 혜진. 일정. 지선. 동광. 자비. 범정. 보명. 지밀. 법완. 금오. 무오. 지우. 법호. 법승. 무진. 무유. 탄허. 무일. 무상. 빈여. 진여. 일타. 해산. 혜안. 석산. 만오. 봉산. 지운. 법공. 광덕. 우초. 태호. 진공. 동삼. 덕천. 효단. 혜림. 진명. 성문. 도혜. 동운. 법인. 대오. 해성. 무착. 영공. 영현. 송제. 법우. 정현. 달오. 어정. 정관. 청호. 석두. 대공. 묘훈. 도언. 성념. 오성. 해동. 정재. 해명. 지우. 문수. 승배. 도운. 혜명. 혜심. 법경. 경민. 국담. 경오. 현산. 정로. 보담. 정해. 법산. 무량. 향산. 성종. 성심. 성진. 정연. 성인. 성산. 고봉. 자운. 성관. 능소. 법민 (무순)

(사)대원불교조계종 집행위원장 정산당 청봉 대선사 화남